

고수동굴의 환경 보전

고수동굴 관리소장 한 상 봉

I. 동굴의 개발과 환경 파괴

고수동굴은 1976년 9월 2일자로 우리 나라 천연기념물 제 256호로 지정 받았으며, 학교법인 유신학운 박창원 이사장에 의하여 관광동굴로 개발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이 동굴의 환경 변화는 동굴이 생성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자연적인 동굴의 성장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자연환경이 변화 때문에 동굴의 형성되기 시작한 초부터 변화되고 생태도 달라지기 때문에 동굴 환경이 파괴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환경변화는 동굴이 개발되어 공개된 이후부터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동굴의 파괴와 훼손현상은 동굴의 생태 변화를 촉진시키게 되는 것이다.

II. 동굴 환경보전의 필요성

동굴은 오랜 지질시대를 거처온 지각지층 속에서 그 지역이 지질구조, 지형 또는 자연환경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매우 희귀하고도 가치 있는 동굴의 환경이 변화된다면 생태 환경이 달라지면서 훼손 또는 파괴된다. 따라서 동굴의 환경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고수동굴은 우리 나라 관광동굴로는 으뜸 가는 공개동굴로 그동안 많은 절차와 제도를 거처가면서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에 부심하여 온 대표적 동굴이다.

따라서 당국의 해마다 요구되고 있는 안전진단은 물론이고 당사자의 자체적인 환경보전에 대한 제반 대책이 시행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고도로 발전한 경제사회 발전과 산업화의 사회발전에 따라 동굴의 자연신비를 찾는 관람객의 수요는 나날이 증가되고 있어 모든 공개동굴들이 한결같이 환경파괴의 고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III. 동굴의 환경보전 대책

동굴의 환경을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원형대로의 보전도 중요하지만 환경의 오염과 파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유의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관광객의 출입시 관광객의 안전과 지물의 보존을 위해 불필요한 물품의 반입을 통제한다.

둘째, 관광객의 출입시 부자유스런 면도 있지만 관광객의 기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통로를 좁게 조명을 설치한다.

셋째, 강우계절에 지나친 지표수의 유입을 방지하며 과다하게 투수된 양은 적당하게 배출되도록 인공시설을 갖춘다.

넷째, 자연보호를 위한 정신교육과 철저한 제도화를 시행하도록 한다.

다섯째, 동굴 내부의 지나친 관광편의시설을 건축 또는 설비한다는 것은 환경 변화를 초래하므로 되도록 최소한의 도로 코스 시설만을 설비한다.